설현·임시완의 쉼표 찾기 "내 얘기인 줄…대리만족했죠"

지니TV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오는 21일 첫방송 예정
동명 웹툰이 원작, 6개월간 구례·곡성·남해 등 로케이션 촬영

그룹 'AOA' 설현과 배우 임시완이 쉼을 통해 나를 찾아간다. 지니TV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를 통해 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설현은 15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제작발표회에서 "'내 얘기를 쓴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공감이 많이 갔다"며 "그 동안 사건 중심 작품에서 할 말 다하는 씩씩한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사실 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 드라마는 인물의 감정 중심으로 흘러갔고, '여름'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아는 감정이고, 잘 필요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여름은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남들이 보면 답답할 수 있다. 치열하게 사회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을 잘 모른다고 깨닫고,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며 쉼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려고 한다"며 "나도 10년간 일하다가 1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나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됐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같은 마음으로 여름을 연기했다"고 귀띔했다.

이 드라마는 인생 파업을 선언한 자발적 백수 '여름'(김설현)과 삶이 물음표인 도서관 사서 '대범'(임시완) 이야기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안곡 마을로 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는다.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6개월간 구례, 곡성, 남해 등 로케이션 촬영했다.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두 사람 얼굴만 봐도 힐링'이라고 했다. 특히 설현은 메이크업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PD님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해서 노메이크업을 하고, 내가 평소 입은 옷을 입었다. 나 자체를 연기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며 "헤어·메이크업을 안 하다 보니 얼굴, 머리 등을 만질 때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 삶에 치여서 지친 분들이 있을 텐데, 공감하고 대리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시완은 "솔직히 전작 트레이서는 대사가 굉장히 많았다. 외우기 빠듯할 정도였다. 당시 촬영할 때 이 드라마 극본을 받았는데, 대사가 현저히 적더라. 대사 총량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더없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며 "외적으로는 나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팍팍한 일상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짚었다. "대범은 수줍음과 의문점이 많다. 캐릭터의 주축은 순수함"이라며 "인생 파업을 선언하고 무작정 시골로 내려온 여름에게 순수한 모습으로 힐링을 준다.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자체가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요즘 사회는 바쁘지 않으면, 누군가에 비해 도태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바쁠 수 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사회가 됐다. 사실상 우리는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를 정도로 바쁜게 일상화 돼 언젠가는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한 켠에 있을 것 같다. 이 드라마를 보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커피프린스 1호점'(2007) '치즈인더트랩'(2016) 이윤정 감독이 연출했다. 이 PD는 "20년 넘게 연출하면서 소원이 촬영장에서 죽는 것이었다"며 "하다보니 지치고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을 때 이 드라마 원작을 읽고 'CCTV를 달았나' 싶었다. 내 얘기 같았고 재미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번 캐스팅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두 사람 모두 캐릭터와 비슷했다"며 "설현씨는 내성적이고 수줍음도 있지만, 질문하면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여름과 닮았다. 시완씨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처음 만나고 대범의 순수함을 극대화한 것 같았다"고 귀띔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 같은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 설현씨는 거의 비비크림만 바르고 노메이크업으로 촬영했고, 낡은 옷 두 세벌만 입었다. 시완씨가 (촬영하는 동안) 구례에 내려와서 살고, '다큐처럼 찍고 싶다'고 공감해줘서 고마웠다. 예쁘게 찍고 예쁘게 연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두 사람의 외모도 예쁘지만, 표정, 행동이 더 예쁘다. 작위적으로 만들어서 예쁜 게 아니라 풍겨나오는 점이 예쁘다."

21일 지니TV와 시즌(seezn)에서 공개. ENA에서 매주 월·화요일 오후 9시20분 방송.

이재욱·고윤정, 빛과 그림자의 인연…'환혼2' 포스터 공개

tvN 내달 10일 첫 방송

여기 빛과 그림자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

tvN 드라마 '환혼: 빛과 그림자'(연출 박준화, 극본 홍정은 홍미란)가 배우 이재욱과 고윤정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 속에는 어둠 속 이재욱과 신비로운 빛을 내는 고윤정 모습이 담겼다.

이재욱은 안개 속에 홀로 서 어딘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다. '불길하고 미친놈. 나는 그때 죽었어야 했다'라는 문구를 통해 죽음에서 살아 온 그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더한다.

고윤정은 깊은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라는 문구를 통해 기억을 잃은 사연과 그의 정체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월 방영한 '환혼' 2번째 시리즈인 '환혼: 빛과 그림자'는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비틀린 이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판타지 로맨스다. 장욱(이재욱)과 새로운 술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내달 10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

최민식·손석구 '카지노' 내달 21일 공개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배우 최민식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카지노'가 다음 달 개봉을 확정했다. 이 작품은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다.

디즈니+는 '카지노'가 다음 달 21일 개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드라마는 필리핀 카지노의 전설이 된 남자 '차무식'이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최민식이 차무식을 맡았고, 손석구·이동휘 등도 출연한다. 손석구는 차무식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오승훈'을, 이동휘는 차무식의 오른팔 '정팔'을 연기했다.

블랙핑크, '그래미 어워즈' 깜짝 후보?…BTS, 3년 연속 노미 기대

빌보드·롤링스톤, 블랙핑크 본상 부분 후보지명 가능성 점쳐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후보 공개 하루를 앞두고 K팝 그룹의 활약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중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예측 기사에서 K팝 간판 그룹으로 떠오른 '블랙핑크'의 '올해의 앨범' 노미네이션에 대해 점쳤다.

블랙핑크는 지난 9월 발매한 정규 2집 '본 핑크'를 통해 K팝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음반은 최근 차트인 지난 12일자 '빌보드 200'에서 7계단 역주행하며 93위를 차지하는 등 7주 연속 해당 차트에 머물며 여전히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의 앨범'은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그리고 '베스트 뉴 아티스트'(신인상) 등이 '제너럴 필즈'로 통하는 그래미 4대 본상에 포함된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0년과 지난해 각각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2년 연속 지명됐지만, '제너럴 필즈' 후보엔 지명되지 못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잡지 롤링스톤은 최근 그래미 어워즈 후보 예측 기사에서 "그래미는 한국 슈퍼스타를 무시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제너럴 필즈)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니 블랙핑크도 이번에 간과되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한국 여성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던 것처럼, 후보에 오르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빌보드는 '블랙핑크가 '그래미 어워즈' 빅4 부문에서 후보에 오른 최초의 K팝 가수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블랙핑크는 앨범 '본 핑크'와 싱글 '핑크 베놈'으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넘보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두 번의 큰 대히트로 그것(빅4 진입)을 하지 못했으니 긍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블랙핑크가 '본 핑크' 선공개곡이자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22위를 차지한 '핑크 베놈'으로 블랙핑크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지명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는다. '본 핑크' 타이틀곡 '셧 다운'을 '핫100' 25위에 연이어 올린 블랙핑크를 퍼포머로 초대해 그래미 어워즈 흥행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방탄소년단 역시 올해 퍼포머로 나서 그래미가 주목 받는데 힘을 보탰다.

현재 북미 투어를 손조롭게 진행 중인 블랙핑크는 현지에서 팬덤을 급격하게 불리고 있다.

블랙핑크는 '올해의 앨범'과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등에 출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K팝 팬들 사이에선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3년 연속 노미네이션될 지도 큰 관심사다. 방탄소년단 노래 중 지난 6월 발표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 타이틀곡 '옛 투 컴',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 멤버 정국이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와 협업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 보컬라인 진·지민·뷔·정국이 베니 블랑코·스눕독과 컬래버레이션한 '배드 디시전스'가 해당 부문과 함께 '올해의 레코드'·올해의 노래' 부문에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곡들이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해리 스타일스 등 막강한 후보들의 노래가 포진한 올해 '제너럴 필즈' 후보에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도 수상 가능성이 낮다고 현지에선 보고 있다. '마이 유니버스'만 1주간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 다른 곡들은 '다이너마이트'와 '버터'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에 지명될 경우 3년 연속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정국이 퍼포머로 초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올해 '빌보드 200' 1위에 2개의 앨범을 올린 '스트레이키즈'의 깜짝 후보 지명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이번 그래미 어워즈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발표된 노래들이 대상이다. 수상 부문은 총 91개 카테고리다.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2시 후보자를 발표한다. 시상식은 내년 2월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방탄소년단 RM "학창시절 별명 토크박스"

tvN 새 예능물 '알쓸인잡'이 출연자 6인의 인터뷰 티저를 14일 공개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학사전'(이하 '알쓸인잡')은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을 탐구하며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영화감독 장항준·방탄소년단 RM(김남준)이 MC로, 소설가 김영하·물리학 교수 김상욱·법의학 교수 이호·천문학 박사 심채경이 전문가로 나선다.

인터뷰 티저에는 출연자 6인의 각양각색 출사표와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엿보인다. 먼저 '잡학사전' 시리즈의 개국공신이라 불리는 김영하는 "이 시리즈가 리얼(real)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알쓸신잡' 시즌1 때 가장 잘했던 것 같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타인을 통해 자신을 잘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김상욱 교수는 이번 출연으로 '잡학사전' 시리즈의 최다 출연자가 됐다. 여유로운 미소로 기쁨을 드러낸 그는 현장의 환호를 한 몸에 받았다. 김 교수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예시로 들며 "모든 문장은 인간을 주어로 하는 순간 신비로워진다"고 전했다.

남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했던 이호 교수 또한 "법의학은 사회학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의학 중 하나일 것"이라며 그가 전할 흥미로운 이야기를 예고했다.

MC로 나선 장항준은 "MC는 노력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나는 원래 듣는 사람"이라며 부담감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수많은 감독, 작가 지망생들에게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해준다"며 "기술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입 출연자들의 설렘 가득한 각오도 이어졌다. 심채경 박사는 "천문학자가 아닌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싶었다"면서 "한 인간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을까"라고 인간에 대한 천문우주적 접근으로 궁금증을 자극했다.